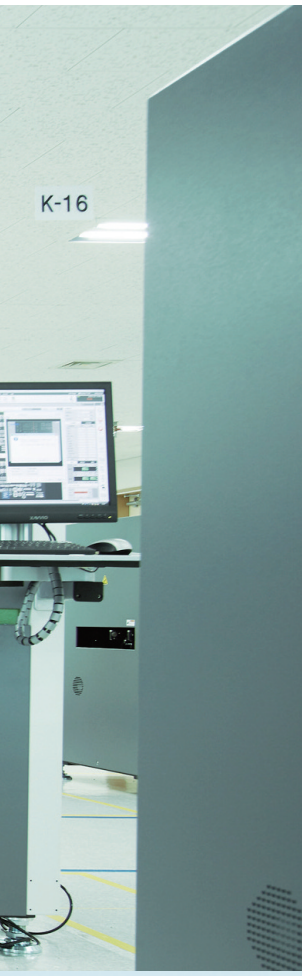
KOHYOUNG



고영테크놀러지 인터뷰

—

최종 제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영테크놀러지 R&D 센터
메디컬 비전팀 **유성용** 사원

_ 2014년 2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졸업
_ 2016년 2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제어 로봇 시스템 전공)

고영테크놀러지는 표면실장기술(SMT, Surface Mount Technology)을 이용한 전자제품 인쇄 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검사 장비를 주력 사업아이템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글로벌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SMT 공정 분야 세계 최초의 3D 검사장비 제조업체로 세계 최초로 3D 납도포 검사기(SPI), 3D 부품실장 검사기(AOI)를 개발하여 업계 유일의 3D 측정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여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건실한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San Diego 에 AI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여, 미래 핵심기술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공정 최적화 솔루션(KSMART Solution)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유의 Robotics 및 광학, 3차원 영상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Harvard Medical School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 또는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뇌수술용 로봇 개발을 통해 의료분야의 또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대학원생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A 저는 연구소 메디컬 비전팀에 소속되어 3차원 네비게이션 의료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로봇은 크게 광학(Optical) 방식과 전자식(EM)방식으로 나뉘는데 고영의 광학, 로보틱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학 방식의 네비게이션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의료용 네비게이션의 정밀도는 외과의사들의 수술 성공 확률과 직결됩니다. 때문에 기존의 영상처리 기술들을 개선, 응용하여 완벽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 팀은 담당하고 있는 영상처리 알고리즘 외에 광학계, SW 및 연산장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수적이기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Q. 사내 스터디 모임 등 지속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A 팀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때 보통 자기가 탐색하여 알게 된 것이나 업무 성과물 또는 업무 중 얻은 경험을 발표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외부 교수님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듣고, 필요에 따라 학회에 참석하여 최신 연구 동향과 응용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Q.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연구소)를 최종 선택하게 되신 동기는?

A 연구 환경과 회사 시스템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보통 학교에 있다 보면 이론적인 논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연구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엔지니어로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영의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연구소 직원일 정도로 회사의 많은 자원과 정책이 좋은 연구환경을 만드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원 복지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복지가 많은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사내 헬스장과 수면실, 자유롭게 쉬며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사내 카페 운영, 월 40만원의 식사비와 월 2회 고품질 점심식사 비용 지원 등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Q. 업무분야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그로 인하여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A 아직 저희 부서의 제품은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미래에 저희 제품이 수술 환경에서 사용되어 외과 의사들의 수술 성공확률을 현저히 높이고, 많은 환자들이 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종 제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하루 일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A 보통 아침에 출근하여 개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점검합니다. 메디컬 비전팀 업무 특성 상 이전 연구 결과에 따라 수시로 다음 방향을 찾아야 하는 일이 많아 업무 조정이 많은 편입니다. 매일 수정된 계획에 따라 실험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Q.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과학기술계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A 대학원 시기에는 논문과 졸업을 최종목표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전공 특수성에 따라 점점 좁아지는 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지만 학위 과정에서 쌓은 연구 경험과 지식은 본인의 자산이 되고, 실제 회사에서 연구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